

## 조선시대 문집 간행의 분정 연구\*

우 진 웅\*\*

- I. 서언
- II. 문집 간행의 공론 형성 및 분정 과정
- III. 문집별·공정별 분정 항목과 참여 인원
  - 1. 문집별 분정
  - 2. 공정별 분정
- IV. 문중 분정과 문중 외 분정 사례
- V. 요약 및 결론

### 국문초록

조선시대 지역 사회의 지식인들은 문집의 성공적인 간행을 위해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각 공정별로 담당할 임무를 결정하였는데, 이때 작성한 기록물을 ‘분정기’라고 한다. 분정기는 각 공정별 임무와 인명이 열거된 단순한 기록물에 불과하지만 문집 간행의 초기 상황과 간행에 참여했던 인물 구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2종의 분정기를 대상으로 하여 문집별 분정 내역과 각 공정별 분정 항목에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7677)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jwoong@koreastudy.or.kr)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조선 후기 학자로 많은 문인을 배출한 정재 류치명의 문집인 『정재집』을 간행할 때 문인들의 참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정의 항목은 감독과 관리, 교정, 서사 관련, 판각과 판각 교정, 인출, 목판 관리, 제책과 반질 관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정의 항목과 순서는 문집마다 동일하지 않았으며 주로 간행 과정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분정기에 기록된 여러 임무 중 도도감과 도감은 문집 간행의 총괄 책임자로 지역 사회에서 연륜과 학식이 있는 인물로 정하여 주로 1-2명이 맡았으며, 도감은 전체를 총괄하거나 판각, 인출, 교정 등 각 공정별로 따로 두어 관리, 감독하였다. 분정기에 수록된 인물 구성은 저자의 후손이나 문인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도 있으나 문중 인물들로만 구성된 분정과 문중 외의 인물로만 구성된 분정을 각각 따로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인 『정재집』의 경우 문중 분정은 72명의 지역 사회의 동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13명으로 구성된 문중 외 분정에는 이돈우, 권연하, 김도화, 권세연 등 정재 류치명의 문인들이 도도감, 교정도도감 등의 주요 임무를 맡았다.

◆ 주제어

책판, 문집, 문집 간행, 분정기, 목판본

## I. 서언

조선시대 문집의 간행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집 간행을 위한 지역 사회 지식인들의 회의를 거쳐 저자의 남아있는 글들을 후손이나 문인들이 모아 편성하였고 이어 서사, 판각, 인출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문집 간행을 위한 회의에서는 비용의 조달, 간행 관련 업무 등 전반적인 과정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문집 간행에 필요한 임무와 담당 인물을 나누어 결정하였는데 이를 ‘分定’ 또는 ‘爬任’이라 하며, 이때 작성한 기록물을 ‘分定記’ 또는 ‘分定錄’, ‘爬錄’이라 한다.

분정은 성공적인 문집 간행을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저자의 후손이나 문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저명한 지식인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분정의 항목에는 간행 작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도도감, 교정을 감독하는 교정도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문집을 간행할 때마다 분정의 항목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문집의 규모와 간행 여건에 따라 참여 인원수나 분정의 항목도 다양하였다. 분정기는 항목과 인명이 열거된 단순한 문서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특히 문집 간행 시 분정기는 남아있는 자료가 희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문집의 간행 과정과 참여 인물 구성 등 초기 단계에 있어서 지역 사회 움직임과 준비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문집 간행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먼저 조선시대 문집 간행의 사회적인 의미와 관련한 연구로, 김윤제는 조선시대 문집의 내용과 간행 과정을 살펴보고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추적하여 문집 간행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성리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sup>1)</sup> 류준필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영남에서 진행된 문집 간행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책판 제작을 통한 문집 간행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살펴보았다.<sup>2)</sup> 또한 김순석은 1817년 『퇴계집』의 판각 작업이

1) 김윤제, 「조선시대 문집 간행과 성리학」, 『한국사 시민강좌』 37, 2005, 75~95쪽.

2) 류준필,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적 의의-19세기~20세기 초 영남 지방의 문집 간행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0, 2010, 97~132쪽.

이루어졌을 당시의 판각 과정과 문집 간행 중에 나타난 사회문화사적인 의의를 조명하였다.<sup>3)</sup>

문집의 간행 과정에 관한 연구로 손계영은 1889년 경남 단성에서 性齋 許傳(1797-1886)의 문집을 간행할 당시 간역소에 대한 기록이 담긴 『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를 분석하여 문집의 간행 과정과 간행 비용 등을 살펴보았다.<sup>4)</sup> 기타 문집 간행 과정 중 교정과 관련한 연구로, 문집 간행을 위해 정본이 마련되는 과정과 특정 문집의 교정쇄를 통하여 교정 지시 방법을 살펴보았고,<sup>5)</sup> 교정쇄의 교정 지시에 따라 책판이 교정된 모습과 방법 및 인출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여 그 현황을 정리하였다.<sup>6)</sup> 또한 西谿 金在燦(1811-1888)의 『西谿集』의 간행 과정을 담은 『西谿集刊役日錄』를 대상으로 하여 당시 안동 유림들이 문집 간행 시 오고간 편지에 의거한 문자 행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sup>7)</sup>

이렇듯 지금까지 문집 간행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 문집 간행의 사회문화적인 의미와 간행 과정 중의 특징, 문집 교정 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전해지는 간행일기 등을 참고하여 분정 항목과 인물을 간략하게 다루거나 간행일기를 국역하면서 그 속에 수록된 분정 기록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으나<sup>8)</sup> 문집 간행 시 분정기만을 대상으로 한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 인물과 임무 분담 내용이 담긴 22종의 분정기를 조사하여 문집별 분정 항목과 분정 인물 및 인원, 각 공정별 분정의 유형을 비롯한 기타 분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sup>9)</sup> 아울러 조선 후기 영남의 큰 학자로 많은 문인을 배출

3) 김순석, 「유교사회와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사적 의의-『선생문집개간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2, 2014, 439~466쪽.

4) 손계영, 「『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46, 2015, 153~182쪽.

5) 장원연, 「조선시대 개인문집의 간행과 교정」, 『서지학보』 34, 2009, 59~88쪽.

6) 장원연, 「눌재집 책판 교정 사례 연구」, 『서지학연구』 70, 2017, 227~252쪽.

7) 이미진, 「안동의 어느 간역소에 보낸 메시지-『西谿集刊役日錄』의 편지와 한시를 중심으로-」, 『영남학』 71, 2019, 287~312쪽.

8) 한국국학진흥원, 『문집판각의 기록-간역시 일기』,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5.

9) 대상자료 22종 중 21종은 문중에서 기탁하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한 정재 류치명의 문집인 『정재집』의 간행 시 저자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참여한 인물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 II. 문집 간행의 공론 형성 및 분정 과정

문집의 간행은 저자의 후손이나 문인들이 선조이자 스승의 학덕을 기리고 글을 오래도록 남기기 위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일가나 일족, 학맥 등에 소속된 집단이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과 선양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남긴 저술의 보유, 후손 및 후대의 간행 의지, 문집 간행의 당위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론을 거친 합의, 경제적 여건, 간행 제반 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들 요건 중 하나라도 미치지 못하면 간행은 어렵게 된다. 이렇듯 문집은 저자의 사후 간행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지식인들의 여러 차례 회의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간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大溪集』<sup>10)</sup>을 간행하기 위한 후손의 노력과 지역 사회의 합의 과정을 살펴보자. 1818년 저자의 사후 그의 아들은 부친의 글들을 수집하여 10권으로 편집하였고, 몇 년 동안 교열하여 7권으로 줄이고, 또 5권으로 줄였다. 그러나 계속된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문집 간행을 바로 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주정의 사후 60년이 되던 1878년 겨울 화수회 때 대계의 손자는 중형인 帆溪<sup>11)</sup>에게 “할아버지의 유고가 아직 상자 속에 들어 있을 뿐 언제 간행될 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자손의 허물이다”라고 하면서 문집 간행의 의지를 눈물로 호

다. 분정기의 작성 시기는 일부 20세기 초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분정기도 있으며, 주로 영남지역 인물의 문집이 대부분이지만 저술서 등도 일부 포함시켰다.

10) 李周禎(1750-1818): 본관은 고성, 자는 景詹, 호는 大溪, 1795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사헌부지평 등을 지냈다.

11) 李贊(1798-1887): 동치중추부사를 지냈으며 당대 학행으로 명성이 높았다.

소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문집을 간행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이유로 “아버지께서 미처 간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매년 흉년으로 간행의 방도가 없었으며, 담당하여 일을 맡을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토로하였다. 아버지의 별세, 경제적 여건 등이 문집을 간행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또한 “본인의 나이도 이미 일흔이 되어 갑자기 죽으면 장차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서 다시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생전에 할아버지 문집의 적극적인 간행 의지를 표출하였다.

아울러 그는 그 자리에서 문집 간행을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이에 범계는 “대계 할아버지의 문집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이씨문중의 큰 흠집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계선생이 살아 계실 적에 문중을 위해 헌신한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문집을 간행하자는 데에 뜻을 하나로 모았다. 문집 간행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880년에 5권의 정고본을 다시 3권으로 줄여 1884년부터 본격적으로 간역을 시작하였다.<sup>12)</sup>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저자의 후손들은 집안에 전해오던 저자의 글뿐만 아니라 저자가 생전에 왕래한 여러 인물과 문중을 수소문하면서 상대방에게 보낸 서신이나 시문, 제문 및 여러 기록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초고본을 만들었고, 초고본의 편성을 마무리하면 몇 차례의 교정을 거쳐 내용을 완전하게 한 定稿本을 만들었다. 문집의 원고 교정은 초고에서 최종 원고인 정고본이 마련될 때까지 여러 차례 교정을 거치게 된다. 교정에는 간행의 주체에 따라 문인이나 후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되는 원고는 최종 원고가 완성되기까지 오랜 기간 토론과 질정을 통한 교정을 거치게 된다.<sup>13)</sup> 이후 지역 사회에서 당회나 향회를 열어 유림들의 공의를 거쳐 간행의 방법, 재원의 조달 방법, 문집의 분량, 문집 간행의 위한 임무 분담 등에 대한 것을 확정한다. 문집 간행의 전체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판각이다. 목판을 만들기 위해

12)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86~289쪽.

13) 장원연, 「조선시대 개인문집의 간행과 교정」, 63쪽.

벌채를 해서 판재를 준비한 다음 각수를 동원해서 목판에 글을 새겼다. 판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판각 교정 작업을 거친 후 인출과 인출 교정을 하였고, 이후 제책과 반질의 과정을 거쳤다. 문집 간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본격적인 간행 작업에 들어가기 전 각 과정마다의 임무를 책임질 적재적소의 인물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 임무를 나누는 것을 ‘분정’, 또는 ‘파임’이라 하고, 작성한 기록물을 ‘분정기’ 또는 ‘분정록’, ‘파록’, ‘파임기’ 등으로 일컬어진다. 분정기의 유형을 보면, 문집 간행 시 외에도 초종시, 대소상시, 분황시, 향사시, 석전제시, 상량시, 중건시 등 종류가 다양하다. 문집 간행을 위한 분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대부분 서원과 같은 규모가 큰 공간에서 지역의 지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의 합의하에 간행 시 임무를 추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817년 『퇴계집』 간행을 발의했을 당시의 임무 분담 상황을 보자.

1817년 1월 5일 당회를 열어 도산서원 원장 李頤淳 등은 『퇴계집』의 판본이 오래되어 개간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았으며, 며칠 후에 다시 모여서 『퇴계집』의 간행을 발의하였고, 2월 13일에 간역을 결정하였다. 2월 20일에 다시 모임을 열어 도도감과 도감을 추천하여 선출하였다.<sup>14)</sup>

번암 채제공의 문집인 『번암집』을 간행할 때 작성한 일기인 『刊所日記』에는 분정 당시의 상황이 더욱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1823년 7월 8일 도산서원에서는 시사단비<sup>15)</sup> 중건을 위한 모임이 개최되었다. 무려 400여명의 유림이 참석한 대규모 모임이었다. 이 모임의 주요 안건은 8월에 비석을 건립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 안건은 『번암집』 간행에 대한 것이었다. 『번암집』 간행과 관련하여 그 자리에서 간역을 총괄하는 간역도감으로 현감을 지냈던 李頤淳 등 3명과 교정도감으

14)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64~65쪽.

15) 1792년 정조가 퇴계 이황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규장각 각신 이만수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별과를 실시했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1796년에 세운 비석, 1824년에 중건하였다.

로 16명을 추천하여 뽑았다.<sup>16)</sup> 그러나 도산서원에서 도회를 열어 간역 도감 등의 임무를 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8월 그믐에 서울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은 간역 공사원에 참판 金熙周, 풍안군 柳相祚로 정하고, 나머지 도감 수십 명은 모두 영남의 사대부로 정하라는 것이었다. 10월에 김희주, 류상조를 비롯한 각 지역의 사대부 수백 명이 모인 도회에서 도산서원 원장 이이순은 도산서원과 서울에서 각각 분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임원을 분정한다는 사실을 알린 뒤 김희주와 류상조 두 명을 도도감으로 하고, 나머지 여러 임원은 모든 유생과 상의한 후에 추천하여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모두가 동의하여 도도감 2명을 추천하여 선출한 다음 벽에 써 붙였다. 도도감이 좌석에 나온 다음 그 아래 여러 임원은 도도감인 김희주, 류상조가 각자 호명하여 추천하였는데, 都監 수십명, 校正 50여명, 有司 40여명, 都廳 10명, 直日 10명이었다. 監刻과 監印은 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려서 정하여 선출한다는 뜻으로 좌중에 통고하였다.<sup>17)</sup>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집 간행 시 임무를 나누는 행위, 즉 분정은 간행을 주도한 저자의 후손이나 문인과 같은 개인이 단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한 모임에서 공론과 공의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또한 『변암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임무를 선출한 후에 이를 기록한 분정기를 건물의 벽에 게시한 것을 가끔씩 볼 수 있다. 전통 출판문화가 거의 사라진 현대에는 문집 간행 시 이처럼 분정 기록을 게시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불천위 제사나 향사 등의 제례를 앞두고 종가의 대청이나 서원의 강당에 분정 기록을 게시하는 전통이 내려오는 것도 가끔 볼 수 있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다룬 대상 자료인 분정기 22종의 명칭과 간행 문헌의 서명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자료에서 분정기의 명칭은 주로 ‘파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부 ‘분정기’, ‘집사’라고 표기된 것도 있다.

16)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105~107쪽.

17)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109~111쪽.



〈표 1〉 조사대상 분정기(가나다순)

문헌명	저자	대상자료		원소장처
		분정기 명칭	작성시기	
近庵集	柳致德	近庵先生文集 刊役時爬錄	1912	전주류씨 근암고택
韓齋集	李彦适	韓齋先生文集 刊役時執事	[1865]	덕동민속전시관
陶山及門諸賢錄	-	陶山弟子錄 刊役時爬錄	1913	도산서원
俛菴集	李堉	俛庵先生文集 刊役執事	1825	한산이씨 소산종가
百弗庵集(初刊)	崔興遠	師門文集 刊役記事	[1816]	경주최씨 백불암종가
百弗庵集(重刊)	崔興遠	百弗庵先生文集刊役時執事分定記(門中)	[19c중엽]	경주최씨 백불암종가
百弗庵集(重刊)	崔興遠	百弗崔先生文集刊役所執事分定記(門外)	[19c중엽]	경주최씨 백불암종가
寶白堂實紀 凝溪集	玉沽 金係行	寶白堂先生實紀重刊時 凝溪王先生文集重刊時	[1901]	안동김씨 보백당종가
四書集評	柳建休	四書集評 刊役時爬錄	1920	전주류씨 대야고택
四書集評	柳建休	四書集評 印役時爬錄	1941	전주류씨 대야고택
西谿集	金載瓚	西谿集 刊役日錄	1915	광산김씨 서계고택
松阜集	宋程欽	松阜宋公遺稿 刊行時爬錄	1923	야성송씨 송고문중
巖塘集	金道赫	巖塘金公文集 刊役時爬錄	[1934]	광산김씨 유일재
憂菴・篁林集(刊役)	尹時衡 尹思眞	憂菴篁林兩先生 刊役所爬錄	1913	파평윤씨 우암종택
憂菴・篁林集(重印)	尹時衡 尹思眞	憂菴篁林兩先生 重印時爬錄	1930	파평윤씨 우암종택
立齋年譜	鄭宗魯	立齋鄭先生年譜 刊役時爬任記	[1921]	전주정씨 산수헌
定齋集	柳致明	門中 外 分定記	1883	전주류씨 정재종가
定齋集	柳致明	門中 分定記	1883	전주류씨 정재종가
退溪世系圖 并附錄	-	退溪先生世系圖 并 附錄重刊時爬錄	1880	도산서원
退溪年譜・ 啓蒙傳疑	-	退溪先生年譜重刊時爬任 附 啓蒙傳疑 重刊	1894	도산서원
好古窩集	柳徽文	好古窩柳先生文集 刊役時執事(門中)	1897	전주류씨 호고와종가
好古窩集	柳徽文	好古窩柳先生文集 刊役時執事(門外)	1897	전주류씨 호고와종가

### Ⅲ. 문집별 · 공정별 분정 항목과 참여 인원

#### 1. 문집별 분정 항목

##### 1) 『近庵集』(近庵先生文集 刊役時 爬錄)<sup>18)</sup>

『근암집』은 近庵 柳致德(1823-1881)의 문집으로, 6권 3책 분량이다. 류치덕은 평생을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典禮攷證』 등의 예서를 저술하였다. 문집의 정확한 간행 시기는 미상이나 임자년에 분정기를 작성한 것으로 봐서 1912년 무렵에 간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都都監 1명, 都監 4명, 校正都監 4명, 伐板 3명, 運板 3명, 監刻 3명, 板校 4명, 監印 2명, 粧黃 2명, 直日 3명, 都辦 3명 등 33명이 문집 간행의 임무를 담당하였다.<sup>19)</sup> 저자인 류치덕은 큰할아버지인 柳健休와 족형인 定齋 柳致明에게 학문을 배웠다. 문집 간행 시 도도감을 맡았던 柳淵博은 정재 류치명의 손자로 안동 무실마을에 거주했다.

##### 2) 『龔齋集』(龔齋先生文集 刊役時執事)<sup>20)</sup>

『농재집』은 晦齋 李彦迪(1491-1553)의 아우인 李彦适(1494-1553)의 시문집으로, 1865년 무렵에 목판본 2권 1책으로 간행하였다.

도도감 1명, 도감 1명, 교정도감 8명, 교정유사 9명, 寫板 8명, 勘校 6명, 監印 10명, 讐板 8명, 運板 8명, 都廳 6명, 直日 10명 등 전체 75명이 참여하였다.<sup>21)</sup>

18) 간행 후의 서명과 조사대상 분정기(괄호 안)의 명칭이다.

19) 都都監(1명): 柳淵博/都監(4명): 柳淵甲, 柳郁鎬, 柳致在, 柳昌植/校正都監(4명): 柳淵楫, 柳廣鎬, 柳淵根, 柳淵龜/伐板(3명): 柳文鎬, 柳瓚鎬, 柳載鎬, 運板(3명): 柳淵培, 柳迪鎬, 柳淵時/監刻(3명): 柳東根, 柳慶植, 柳淵珪/板校(4명): 柳淵雷, 柳敬熙, 柳淵應, 柳承春/監印(2명): 柳東幹, 柳淵進/粧黃(3명): 柳淵秉, 柳東麟, 柳範鎬/直日(3명): 柳鼎熙, 柳淵龍, 柳淵麟/都辦(3명): 柳致遇, 柳升鎬, 柳淵均, 壬子(1912) 4月日

20) 포항시, 『포항덕동민속전시관』, 2018. 150쪽.(포항 덕동민속전시관 소장)

21) 都都監(1명): 李述祥/都監(1명): 前大司成 李能燮/校正都監(8명): 前縣監 李鍾祥, 幼

주요 참여 인물을 보면, 도감인 李能燮(1812-1871)은 李在政(회재 이언적의 종손)의 차남으로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교정도감 李鍾祥(1799-1870)은 용궁현감, 강원도사 등을 지냈으며, 監印 李在喜는 이종상의 아들로 참봉을 지냈다. 기타 교정유사로 前正言 李在瀚, 進士 李熹久, 縣監 李能亨이 참여하였고, 勘校에는 進士 李能奕이 참여하였다.

### 3) 『陶山及門諸賢錄』(陶山弟子錄 刊役時爬錄)

퇴계 이황과 제자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1913년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분정기의 서명은 ‘도산제자록’이지만 간행 시 정식 서명은 ‘陶山及門諸賢錄’이다. 간행일기인 『及門錄營刊時日記』에는 1913년 1월에 퇴계의 고제자인 艮齋 李德弘의 후손 李運淵이 찾아와서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 의사를 밝혔으며, 4월 17일 퇴계 종손인 李忠鎬가 통문을 보내 회의를 결정하였다. 4월 20일 도산서원 농운정사에서 首席 前郡守 李中喆 등 20여명이 모여 『도산급문록』 간행에 대해 논의하였고, 4일 뒤인 24일 3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분담 임무를 정하여 각처에 통문을 보냈다.<sup>22)</sup> 이 때 정한 것이 『간역시과록』으로 도도감 1명, 도감 8명, 교정도감 9명, 교정유사 2명, 寫本 6명, 판교도감 6명, 감각도감 6명, 감인도감 6명, 都辦 6명, 시도 19명 등 전체 69명으로 구성하였다.<sup>23)</sup>

學 李在進, 李在野, 李南祥, 李在公, 李在漈, 李瑀祥, 李在翬/校正有司(9명): 李在永, 李在潞, 前正言 李在瀚, 李在欽, 李能洙, 李在泳, 李能立, 進士 李熹久, 縣監 李能亨/寫板(8명): 幼學 李能正, 李唏祥, 李在寅, 李在嶠, 李能熙, 李在燾, 李望久, 李能昶/勘校(6명): 幼學 李在羽, 李在翻, 李能河, 李在穆, 李在塾, 進士 李能奕/監印(10명): 李在龜, 李在濂, 李能懋, 李在沃, 李在微, 李能煥, 李在宇, 李垺祥, 前參奉 李在喜, 前直長 李能華/贊板(8명): 幼學 李在和, 李在鴻, 李浩祥, 李能晚, 李能魯, 李在碩, 李在馨, 李在煥/運板(8명): 李在翼, 李能進, 李在奭, 李能益, 李能斗, 李能繼, 李能鐸, 李在周/都廳(6명): 幼學 李在龍, 李在昇, 李在敏, 李能直, 李遵祥, 李能銓/直日(10명): 進士 李能升, 李能容, 李和久, 李能杰, 李能鉉, 李鑽久, 李能畊, 李能鑽, 李能起, 李錫晉 乙丑(1865) 9月 7日

22)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367~368쪽.

23) 都都監(1명): 幼學 金基洛/都監(8명): 幼學 李昺淵, 李中赫, 李燦和, 李來鳳, 李晚鳳, 李中旭, 李中祐, 李晚始/校正都監(9명): 前校理 李晚燾, 前參奉 李中植, 李中轍, 幼學

주요 인물로는 교정도감에 前校理 李晩燐, 前參奉 李中植, 進士 李康鎬, 교정유사에 進士 李中均, 都辦으로는 前參奉 李植淵이 참여하였다.

#### 4) 『旣庵集』(旣庵先生文集 刊役執事)

『면암집』은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조카이자 小山 李光靖의 아들인 李堉(1739-1810)의 문집으로, 13권 7책 분량으로 간행하였다. 도감 2명, 유사 2명, 교정도감 2명, 교정유사 17명, 직일 3명이 참여하였다.<sup>24)</sup> 문집의 간행 시기는 미상이나 분정기에 ‘乙酉正月’이 기록이 있으므로 1825년경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감에 前縣監 李秉遠(1774-1840)이 참여하였다.

#### 5) 『百弗庵集』(師門文集 刊役記事/百弗庵先生文集 刊役時 執事分定記/百弗崔先生文集刊役所執事分定記)

『백불암집』은 百弗庵 崔興源(1705-1786)의 문집이다. 원집과 부록을 합한 14권 7책으로, 백불암의 증손 崔孝述에 의해 저자의 사후 30년이 지난 1816년경에 초간하였다. 이때 문집의 간행 과정을 기록한 일기인 『師門文集 刊役記事』에는, ‘해인사에서 匠人을 불러오고 板木은 성주 수도산에서 가져왔으며, 간역소는 고령의 봉천서당에 설치하였다. 또한 판목을 베는 일은 1813년 9월, 판각은 1814년 8월, 인쇄는 1815년 1월

---

李中協, 琴岱基, 進士 李康鎬, 幼學 金輝璫, 金魯憲, 李善求/校正有司(2명): 進士 李中均, 幼學 李秉鎬/寫本(6명): 幼學 李裕容, 金夏鎭, 李智淵, 金東植, 趙炳昱, 李中器/板校都監(6명): 吳建永, 李中鐸, 李中實, 李晩璟, 李中參, 李學鎬/監刻都監(6명): 金浩根, 權大永, 李中發, 李中定, 李中遠, 李尙鎬/監印都監(6명): 李中洙, 金魯博, 李中燮, 朴章煥, 金基燦, 李義燦/都辦(6명): 李春九, 李中模, 李中奔, 李麟鎬, 前參奉 李植淵, 幼學 李斗鎬/時到(19명): 李源求, 李中燮, 李用鎬, 李養淵, 前參奉 李晩佐, 李源甲, 李炳轍, 李義震, 李建基, 李源鳳, 琴鏞夏, 李中業, 李中聘, 李述鎬, 李炳朝, 李中燮, 李胤鎬, 李中基, 李性鎬

- 24) 都監(2명): 幼學 金弼成, 前縣監 李秉遠/有司(2명): 幼學 金燾, 李正鋼/校正都監(2명): 幼學 李垸, 金世瑜/校正有司(17명): 幼學 金弼淳, 金弼朝, 李垸, 李秉鉉, 權規, 李協坤, 李秉夏, 南始發, 金普運, 李秀應, 金升秀, 金彥秀, 李秉植, 南鍾洪, 李秉德, 金家洙, 金若洙/直日(3명): 幼學 李秀德, 李章坤, 金弼孝

에 하였다<sup>25)</sup>는 기록이 있다. 『사문문집 간역기사』에는 간행 시 참여했던 인물 명단을 同門稷 任司, 刊役所 任司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동문계 임사에는 都廳 2명, 有司 4명 등 6명, 간역소 임사에는 都檢 1명, 伐板 1명, 運板 1명, 校正 4명, 監印 3명, 司貨 1명 등 11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판각 장소인 고령 인근의 대구, 성주, 칠곡, 합천 등에 거주하였다. 간역소 임사에는 따로 각수 분정을 두었으며 38명의 시도 명단도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각수분정으로는 해인사 소속의 사찰 각수가 都刻手를 맡았고, 公事員 1명, 掌務 1명, 曹司 1명, 首頭 20명, 木手 1명, 冊工 2명, 炊飯 2명 등 25명이 맡았다. 해인사 소속 사찰 각수가 대부분이며, 이외 대구, 합천, 성주 등에 거주하는 민간 각수가 참여하였다. 용기사, 동화사에서조차 사찰 각수가 참여하였다.

<표 2> 『백불암집』(初刊) 분정 기록

구분	분정 항목
同門稷 任司	都廳(2명): 趙宅奎, 李祥發(義城)/有司(4명): 蔡必勳, 崔奎鎮, 郭柱基, 崔孝述
刊役所 任司	都檢(1명): 李光理(星州)/伐板(1명): 鄭夢說(陝川)/運板(1명): 文光瓚(陝川)/校正(4명): 李鍊(漆谷), 鄭奎錫(星州), 金相度(高靈), 李仲樸(草溪)/監印(3명): 朴基復, 李深, 朴慶家(高靈)/司貨(1명): 李會運(漆谷)
刊役所 到記	吳慶人(고령), 郭漢綏(고령), 郭鎮奎(고령), 吳應雲(고령), 金光運(고령), 金祺壽(선산), 郭堦(고령), 吳道福(고령), 郭思翰(고령), 郭之翰(고령), 郭鎮斗(고령), 張渲(인동), 文周鳳(합천), 姜馥(진주), 洪升雨(칠곡), 吳慶鼎(고령), 李仲樸(초계), 郭礪(고령), 朴慶家(고령), 吳慶元(고령), 吳應瑀(고령), 盧國賓(초계), 全宅溟(초계), 朴善益(고령), 李鍊(칠곡), 鄭奎錫(성주), 金敬喆(고령), 文演漣(합천), 鄭敬勳(성주), 朴慶九(고령), 黃儒老(상주), 金相洛(고령), 張奎魯(인동), 文光瓚(합천), 金相度(고령), 安孝準(밀양), 安孝閔(밀양), 李鍊(칠곡)
刻手分定	都刻手(1명): 寺刹 刻手 頓慧(해인사)/公事員(1명): 金興采(대구)/掌務(1명): 僧 碩沾(해인사)/曹司(1명): 僧 達信(해인사)/首頭(20명): 張慶運(거창), 李宜植(창녕), 方德成(거창), 韓宅弔(대구), 僧 坦澄(해인사), 李興植(합천), 吳尙得(거창), 僧 達熙(해인사), 僧 有榮(용기사), 僧 戒沾(해인사), 朴勝百(합천), 僧 定印(해인사), 金宗一(대구), 裴正玉(성주), 朴萬儀(거창), 朴台觀(대구), 僧 允性(해인사), 金昌祿(대구), 韓繼千(대구), 僧 肯令(동화사)/木手(1명): 金日孫(합천)/冊工(2명): 金根(대구), 李龍(대구)/炊飯(2명): 僧 戒寬(해인사), 奴 允發(書堂 庫直)

25)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45쪽.

한편, 19세기 중엽 『백불암집』을 重刊할 때에는 문중 분정과 문중 외 분정을 따로 한 2종의 분정기가 전해진다. 문중 분정기의 서명은 ‘百弗庵先生文集刊役時 執事分定記’이며, 責應都監 2명, 責應有司 4명, 校正都監 2명, 校正有司 4명, 監印都監 2명, 監印有司 5명, 直日 5명을 두었다.<sup>26)</sup> 문중 외 분정기는 ‘百弗崔先生文集刊役所 執事分定記’라고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문중 분정기의 ‘백불암선생’은 ‘백불최선생’, ‘간역시’는 ‘간역소’로 표기하여 차이가 있다. 都檢舉 1명, 都廳 2명, 責應 2명, 校正都監 14명, 校正有司 11명, 監印 5명, 直日 5명 등 40명이 분담하였다.<sup>27)</sup> 주요 인물로는 都檢舉에 前承旨 李晉祥, 교정도감에 進士 李海祥, 進士 李源祐, 前牧使 李彙載, 前校理 金龍洛, 朴履基, 前正言 郭泰魯가 참여하였고, 교정유사에 進士 李以斗, 進士 徐炳坤, 進士 李維在, 직일에 進士 朴鐵鉉이 참여하였다.

## 6) 『寶白堂實紀』·『凝溪集』(凝溪玉先生文集重刊時·寶白堂先生實紀重刊時)

『보백당실기』는 조선 전기 문신으로 고령현감, 대사성 등을 지낸 寶白堂 金係行(1431-1517)의 실기이다. 저술이 남아 있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행적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후손들이 1901년에 4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분정기에는 『보백당실기』와 함께 『응계집』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 『응계집』은 세종 때 사헌부장령을 지낸 凝溪

26) 責應都監(2명): 崔淵, 崔瀾/責應有司(4명): 崔敬, 崔恒述, 崔[], 崔命億/校正都監(2명): 崔永鎮, 崔瀾/校正有司(4명): 崔雲瀚, 崔和述, 崔時述, 崔榮述/監印都監(2명): 崔瀾, 崔瀾/監印有司(5명): 崔潏, 崔仁述, 崔周述, 崔明述, 崔命憲/直日(5명): 崔雲慶, 崔能述, 崔澄, 崔雲翼, 崔淡

27) 都檢舉(1명): 前承旨 李晉祥/都廳(2명): 具致魯, 蔡沁/責應(2명): 楊處東, 徐秀烈/校正都監(14명): 進士 李海祥, 李秉殷, 鄭堦, 金鎮坤, 柳奉春, 李源永, 進士 李源祐, 朴基升, 李芝運, 孫廷煥, 前牧使 李彙載, 前校理 金龍洛, 朴履基, 前正言 郭泰魯/校正有司(11명): 進士 李以斗, 金養範, 都鎮馨, 李秀中, 鄭致章, 進士 徐炳坤, 藏福遠, 孫亮緒, 進士 李維在, 李文稷, 鄭崙載/監印(5명): 鄭光實, 宋相沃, 李濟永, 全履善, 禹海朝/直日(5명): 李命儒, 李能容, 進士 朴鐵鉉, 鄭東箕, 調命和

玉沽(1382-1436)의 시문집이다. 김계행과 옥고는 안동 목계서원에서 함께 배향되었기 때문에 1901년에 두 문집을 함께 간행하였다. 도감 7명, 교정 7명, 監刻 9명, 監印 9명, 運板 9명, 粧績 7명, 都辦 7명, 時到 5명, 直日 9명 등 전체 69명이 임무를 나누었다.<sup>28)</sup> 주요 인물로는 都監에 前郡守 柳止鎬(1825-1904)와 進士 金景洛이 참여하였고, 校正에 柳必永(1841-1924), 進士 金瑞洛이 참여하였다.

## 7) 『四書集評』(四書集評 刊役時爬錄)

『사서집평』은 조선 후기의 학자인 柳健休(1768-1834)가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四書에서 논의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評註를 모은 책으로, 6권 3책 분량이다.

『사서집평』의 분정기는 20여 년의 차이를 둔 刊役時 분정기와 印役時 분정기가 전해진다.<sup>29)</sup> 1920년에 작성한 『刊役時爬錄』은 都都監 1명, 都監 5명, 校正都都監 1명, 都監 4명, 伐板 3명, 運板 3명, 監刻 4명, 監印 4명, 直日 9명, 都辦 5명 등 전체 39명이 수록되었다.<sup>30)</sup> 도도감 류연박

28) 都監(7명): 前郡守 柳止鎬, 幼學 李琬, 金弼洛, 李殷榮, 進士 金景洛, 幼學 金炳昊, 鄭聖寬/校正(7명): 幼學 李習, 金永洛, 權敦永, 李重明, 進士 金瑞洛, 幼學 柳必永, 裴永年, 裴永斗/監刻(9명): 幼學 金鍾淵, 李守榮, 李炳宇, 柳致聲, 金洛疇, 玉魯煥, 李義洛, 金濟恒, 李鍾圭/監印(9명): 幼學 權進弼, 金履洛, 柳淵穆, 金大洛, 李鍾永, 金程洛, 權世永, 金紹輝, 金鉉洛/運板(9명): 幼學 柳定鎬, 朴齊規, 張景弼, 卓致聖, 鄭源浩, 李庭欽, 孫鎮道, 趙秉圭, 玉汝亨/粧黃(7명): 幼學 金炳植, 金鎮城, 李鍾海, 南錫愚, 金壽尙, 鄭進欽, 權相新/都辦(7명): 幼學 李捷, 金恒洛, 權進吾, 金炳時, 金顯洛, 柳淵學, 金鎮澤/時到(5명): 金鎮穆, 柳廣鎬, 金武洛, 權憲淵, 金廷煥/直日(9명): 李世求, 金秉植, 李象義, 金健洛, 柳致遇, 金鎮培, 金章洛, 柳承洛, 金學圭

29) 1934년에 석판본으로 발행한 판본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본 분정기로 볼 때 1920년에 목판본 간행을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30) 都都監(1명): 柳淵博/都監(5명): 柳致遇, 柳中植, 柳淵根, 柳秉鎬, 柳廣鎬/校正都都監(1명): 柳必永/校正都監(4명): 柳淵好, 柳淵楫, 柳晦植, 柳淵龜/伐板(3명): 柳東建, 柳淵龍, 柳淵必/運板(3명): 柳東根, 柳淵護, 柳東肇/監刻(4명): 柳敬熙, 柳升鎬, 柳慶植, 柳淵進/監印(4명): 柳東仁, 柳淵鳳, 柳迪鎬, 柳致崇/直日(9명): 柳淵韶, 柳璋植, 柳東斗, 柳淵承, 柳泳熙, 柳建宇, 柳東和, 柳東燁, 柳圭元/都辦(5명): 柳淵麟, 柳淵秉, 柳淵應, 柳承春, 柳孝淵

은 정재 류치명의 손자이다. 권말에 경신년(1920) 4월에 작성한 기록이 있다. 1941년에 작성된 『印役時爬錄』에는 都都監 2명, 都監 4명, 校正都監 5명, 寫本 4명, 監印 8명, 粧緘 4명, 時到 5명, 直日 4명, 都辦 5명 등 전체 41명이 수록되었다.<sup>31)</sup> 도도감으로 참여한 柳東蓍는 정재 류치명의 증손이자 간역시 도도감으로 참여한 류연박의 아들이다. 신사년(1941) 4월에 분정기를 작성한 기록이 마지막에 있다.

## 8) 『西谿集』(西谿集 刊役日錄)<sup>32)</sup>

『서계집』은 西谿 金在燦(1811-1888)의 문집으로, 6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재찬은 조선 전기 학자인 惟一齋 金彦璣(1520-1588)의 후손이다.

『서계집』은 김재찬의 사후 27년 뒤인 1915년에 그의 손자 金永奎의 주도에 의해 간역이 착수되었으며, 拓庵 金道和(1825-1912)의 서문과 曉庵 李中轍(1848-1937)의 발문 작성을 끝으로 간역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게 되었다.<sup>33)</sup> 『서계집간역일록』에 의하면 1915년 11월 28일 간역을 시작하여 12월 10일에 간역소로 목재를 運板하였으며, 이후 바로 판각을 시작하였다. 都都監 1명, 都監 4명, 校正都監 2명, 都辦 4명, 寫本 4명, 運板 10명, 監刊 9명, 板校 4명, 監印 11명, 直日 7명이 분담하였다.<sup>34)</sup> 도도감은 李兢淵(1847-1925)이 맡았다.

31) 都都監(2명): 柳東蓍, 柳建宇/都監(4명): 柳淵珪, 柳淵慶, 柳鐸淵, 柳東寓/校正都監(5명): 柳璋植, 柳東仁, 柳淵承, 柳萬植, 柳東翼/寫本(4명): 柳東煥, 柳東斗, 柳基元, 柳建斗/監印(8명): 柳寬鎬, 柳東錫, 柳東燮, 柳基春, 柳轍薰, 柳泳熙, 柳淵燮, 柳淵惠/粧緘(4명): 柳教熙, 柳道熙, 柳東勳, 柳東升/時到(5명): 柳淵杰, 柳周熙, 柳基泰, 柳東壽, 柳奭基/直日(4명): 柳顯集, 柳熙八, 柳東燾, 柳建瀾/都辦(5명): 柳璋, 柳淵泰, 柳教淵, 柳東德, 柳東潤

32) 『서계집』은 별도의 분정기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서계집간역일록』 안에 수록된 분정기(西谿先生金公文集 刊役時爬錄)에 의거하였다.

33) 이미진, 앞의 논문, 292쪽.

34) 都都監(1명): 幼學 李兢淵/都監(4명): 安泰鏞, 鄭安欽, 權秉夏, 金世鉉/校正都監(2명): 李宜燦, 安夔鎔/都辦(4명): 權秉誠, 安燦重, 李赫淵, 李用赫/寫本(4명): 裴淵載, 李鉉杰, 安孝達, 李延泰/運板(10명): 李用夏, 李鼎夏, 李魯烈, 安教庠, 金在萬, 權丙瑀, 鄭祈欽, 權相璣, 李在淵, 金達鉉/監刊(9명): 李直烈, 李在政, 李教成, 薛鎮世, 權相



## 9) 『松臯集』(松臯宋公遺稿 刊行時爬錄)

『송고집』은 조선 말기의 학자 宋程欽(1839-1882)의 문집으로, 1924년 동생 宋啓欽과 아들 宋渭翼이 주도하여 4권 2책으로 간행하였다.

『간행시과록』은 계해년(1923) 11월에 작성하였으며, 校正都監 1명, 都監 4명, 寫本 5명, 監印 3명, 板校 4명, 刊行 3명, 掌財 2명, 公事員 2명, 曹司 2명 등 총 26명이 참여하였다.<sup>35)</sup> 주요 인물로는 校正都監에 進士 朴勝振, 刊行에 前直員 權大鑽, 前主事 張斗奎가 참여하였다.

## 10) 『巖塘集』(巖塘金公文集 刊役時爬錄)

『암당집』은 조선 후기의 학자 金道赫(1794-1839)의 시문집으로, 1934년에 석관본 4권 2책으로 종증손 金永奎가 편집, 간행하였다.<sup>36)</sup> 김도혁의 자는 德彦, 호는 巖塘, 본관은 光山이다. 都都監 1명, 都監 5명, 校正 4명, 板校 4명, 寫本 5명, 監印 5명, 運板 4명, 掌財 3명, 直日 6명 등 37명이 기록되어 있다.<sup>37)</sup>

- 
- 烈, 李洙遠, 權秉學, 金永甲, 安承甲/板校(4명): 李厚坤, 鄭承虎, 金永翼, 權應相/監印(11명): 李圭淵, 柳弼榮, 李圭鎬, 安承憲, 金鍾漢, 李道善, 李龍鎮, 李用甲, 李在韶, 李中塗, 鄭承驥/直日(7명): 李鏞杰, 李義哲, 權寧穆, 金進洙, 安承德, 李兢模, 安孝甲
- 35) 校正都監(1명): 進士 朴勝振/都監(4명): 幼學 權在吾, 金輝杰, 朴勝薰, 李尙護/寫本(5명): 幼學 金泰奎, 張師國, 閔泳夏, 張奎五, 全奎斗/監印(3명): 幼學 松台翼, 松仁泰, 金東烈/板校(4명): 幼學 朴暉陽, 宋晝煥, 秦應彰, 宋寅璣/刊行(3명): 前直員 權大鑽, 前主事 張斗奎/掌財(2명): 幼學 朴勝明, 宋泰聖/公事員(2명): 趙鎮九, 李運淵/曹司(2명): 李紀鎬, 金昌憲
- 36) 1934년에 석관본으로 발행한 판본만이 전해진다. 이 분정록의 伐板, 運板 등의 기록으로 목판본으로 간행을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37) 都都監(1명): 權秉誠/都監(5명): 李赫淵, 金達鉉, 權相烈, 鄭承勳, 安承烈/校正(4명): 李用赫, 金永甲, 安承國, 李厚坤/板校(4명): 李洙遠, 金永愿, 安奎鎔, 權寧一/寫本(5명): 李秀杰, 李廷泰, 金應洙, 李學基, 安承愨/監印(5명): 柳進瑞, 權東燦, 權相學, 金永奎, 鄭道元/運板(4명): 金大洙, 權一源, 權相佑, 鄭潤燮/掌財(3명): 金永煥, 權寧濟, 李廷杰/直日(6명): 李驥淵, 安國鎬, 金泰洙, 權應璣, 李斗成, 金東洙

# 11) 『憂菴集』/『篁林集』(憂菴篁林兩先生 刊役所爬錄/憂菴篁林兩先生 重印時爬錄)

憂菴 尹時衡(1602-1663)과 증손인 篁林 尹思進(1713-1792)의 문집을 간행할 때의 분정기로 2종이 전해진다. 『우암집』과 『황림집』은 각각 4권 2책 분량으로 1914년 무렵 후손 尹坊 등이 주도하여 간행하였다.<sup>38)</sup> 1913년 두 문집을 간행할 때의 분정기(刊役所爬錄)에 의하면 都都監 1명, 都監 5명, 校正 9명, 監印 9명, 監刻 6명, 校刻 9명, 書寫 12명, 掌財 7명, 粧黃 7명, 洗板 7명, 直日 7명 등 전체 79명이 참여하였다.<sup>39)</sup> 또한 16년 후인 1930년 7월 重印할 때 작성한 분정기(重印時爬錄)에 의하면 都監 3명, 總務 2명, 校正 2명, 板校 2명, 監印 2명, 掌財 2명, 洗板 3명, 補板 3명, 編輯 3명, 粧黃 2명, 結冊 2명, 頒秩 4명, 直日 4명, 有司 3명 등 전체 37명이 참여하였다.<sup>40)</sup>

38) 1914년 憂菴과 篁林의 문집 간행을 축하하며 부조를 보낸 서신(한국국학진흥원 소장-과평윤씨 야성군과 우암종택 간찰)이 전해져 1914년에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39) 都都監(1명): 尹炳周/都監(5명): 尹行憲, 田起薰, 南有萬, 崔鉉夏, 南耆年/校正(9명): 崔鉉斗, 尹相鉉, 南載鳳, 崔燾, 崔道淳, 南炳億, 尹行學, 尹炳圖, 南相奎/監印(9명): 崔鍾學, 尹炳魯, 崔朋壽, 崔年壽, 南載明, 尹相隣, 崔鉉周, 田起周, 朱景弦/監刻(6명): 南赫永, 崔舜述, 田乃豐, 南容圭, 朱秉郁, 尹炳皐/校刻(9명): 崔世淳, 南相台, 尹相武, 朱桓朝, 尹鴻逵, 崔鉉洛, 尹炳彪, 南載倣, 尹炳極/書寫(12명): 尹炳軾, 南容三, 尹相堯, 崔尙淳, 崔翼壽, 朱夏朝, 尹炳燮, 南弼鎬, 尹用逵, 南載喆, 南容直, 南夢鎬/掌財(7명): 南有機, 崔鉉翊, 申在中, 崔鉉勛, 尹相龜, 朱淑朝, 尹炳鮮/粧黃(7명): 尹相琦, 南應熙, 尹炳華, 田在鶴, 南載衡, 崔鉉旭, 張永國/洗板(7명): 尹炳恒, 南炳天, 朱秉國, 南炳禹, 崔仁淳, 尹相憲, 尹相丁/直日(7명): 崔達淳, 尹炳紹, 尹行駟, 南炳健, 尹炳燮, 田垆秀, 尹炳寔

40) 都監(3명): 崔重舜, 田在中, 南容圭/總務(2명): 尹相武, 朱淑朝/校正(2명): 尹奎炳, 朱秉郁/板校(2명): 南容三, 崔鉉洛/監印(2명): 尹相堯, 崔尙淳/掌財(2명): 崔翼壽, 朱夏朝/洗板(3명): 尹炳燮, 崔重國, 田在南/補板(3명): 南駿鎬, 田在鶴, 金行權/編輯(3명): 尹炳一, 南容一, 南載喆/粧黃(2명): 南容憲, 崔性謙/結冊(2명): 尹炳元, 南容憲/頒秩(4명): 田溶商, 尹相憲, 崔重模, 南龍鎬/直日(4명): 南載亮, 尹炳健, 尹相銓, 尹斗鉉/有司(3명): 南容九, 尹聖圭, 崔觀淳

## 12) 『立齋年譜』(立齋鄭先生年譜 刊役時爬任記)

1921년 11월 8일, 立齋 鄭宗魯(1738-1816)의 연보를 간행할 때의 분정기이다. ‘爬任記’라 표기되어 있으며, 都都監 1명, 都監 4명, 校正都監 6명, 運板都監 11명, 監印 11명, 寫本 10명, 直日 7명, 公事員 2명, 曹司 2명 등 전체 54명을 기록하고 있다.<sup>41)</sup> 주요 인물로는 都都監에 進士 宋基普, 都監에 前參奉 黃芝善, 校正都監에 前參奉 柳萬植과 進士 高斗演, 監印에 前參奉 姜來熙, 公事員에 進士 張龍煥이 참여하였다.

## 13) 『定齋集』

『정재집』은 퇴계학을 계승한 조선 후기 학자인 정재 류치명의 문집이다. 저자의 아들 柳止鎬(1825-1904)와 문인 肯庵 李敦禹(1801-1884), 權璉夏(1813-1896) 등이 전해 내려오던 초고를 바탕으로 편집과 교정을 거쳐 1881년에 정고본을 만들었고, 용담사에서 판각하여 1883년 7월에 36권으로 간행하였다. 이때 저자의 문인을 중심으로 한 문중 분정과 문중 외 분정을 각각 하였다.<sup>42)</sup> 문중 분정에는 都都監 1명, 都監 8명, 校正都監 7명, 監刻 11명, 監印 10명, 粧冊 15명, 直日 7명, 時到 11명, 都辦 2명 등 전체 72명이 임무를 나누었으며, 문중 외 분정에는 都都監 2명, 都監 18명, 校正都都監 1명, 校正都監 18명, 校正有司 17명, 監刻 10명,

41) 都都監(1명): 進士 宋基普/都監(4명): 柳源睦, 李起渤, 李炳善, 前參奉 黃芝善/校正都監(6명): 幼學 宋世浩, 李時健, 前參奉 柳萬植, 趙昇衍, 幼學 柳彥馨, 進士 高斗演/運板都監(11명): 幼學 李時殷, 趙鳴夏, 黃在昊, 姜昇馨, 洪鉞柱, 趙南珏, 蔡鴻說, 曹宗煥, 柳道和, 金詰周, 孫亮秀/監印(11명): 趙晉衍, 金直源, 權應靖, 李采珉, 金昌鎭, 前參奉 姜來熙, 幼學 金健秀, 金秉厚, 宋元湜, 康炳憲, 柳承祖/寫本(10명): 盧載瓚, 張默相, 趙珪衍, 盧炳詰, 柳道淳, 金相淹, 洪鍾詰, 全禹錫, 魚允奭, 高太林/直日(7명): 幼學 孫聲遠, 趙匡衍, 金佑賢, 翰斗煥, 李鍾龜, 黃翊周, 蔡汶植/公事員(2명): 幼學 柳東錫, 進士 張龍煥/曹司(2명): 幼學 鄭允默, 全胤錫

42) 문중 분정과 문중 외 분정(문중 분정은 문중 인물로만 구성된 것이며, 문중 외 분정은 문중 인물을 제외한 다른 성씨를 가진 인물로 구성된 것이다. 대부분의 문집 분정은 한 분정기 안에 문중 인물과 제자 등 문중 외 인물이 함께 들어가 있으나 일부는 문중 분정과 문중 외 분정을 별도로 정하여 분정기를 작성하였다. 『정재집』, 『호고와 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정재집』의 분정 내용은 IV장에 수록되어 있다.)

監印 13명, 直日 27명, 時到 2명, 都辦 2명 등 전체 113명이 임무를 나누어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 14) 『退溪世系圖』·附錄(退溪先生世系圖 并 附錄 重刊時爬錄)

1880년에 『퇴계집』 부록을 간행할 때 작성한 분정기이다. 都都監 1명, 都辦 3명, 校正都監 5명, 監寫 9명, 監刻 6명, 監印 3명, 收單有司 10명, 監板有司 2명, 直日 6명 등 45명이 참여하였다.<sup>43)</sup> 주요 인물로는 都都監에 前參判 李晚運, 都辦에 生員 李晚杰, 校正都監에 前承旨 李彙秉, 監寫에 前應教 李晚燾, 前參奉 李中慶, 監印에 前校理 李晚容, 監板有司에 生員 李珀이 참여하였다.

#### 15) 『退溪年譜』·『啓蒙傳疑』(退溪先生年譜重刊時爬任 附 啓蒙傳疑 重刊)

1894년 『퇴계선생연보』와 『계몽전의』를 간행할 때의 분정기이다. 都都監 2명, 都監 6명, 校正都監 6명, 監刻 8명, 監印 8명, 寫本 10명, 收單 15명, 直日 4명 등 전체 59명이 참여하였다.<sup>44)</sup> 주요 인물로는 都都

---

43) 都都監(1명): 前參判 李晚運/都辦(3명): 幼學 李彙準, 生員 李晚杰, 幼學 李晚膺/校正都監(5명): 幼學 琴翼明, 李彙徹, 李晚琦, 前承旨 李彙秉, 幼學 李進淵/監寫(9명): 幼學 李晚協, 李道夏 李中應 金樂熙 李珪行, 金奎相 李彙慤, 前應教 李晚燾, 前參奉 李中慶/監刻(6명): 幼學 琴翼周, 李彙獻, 李晚午, 李晚昌, 李益和, 金基洛/監印(3명): 前校理 李晚容, 幼學 李彙聞, 李中範/收單有司(10명): 幼學 李中健, 李晚疇, 李晚信, 李晚潛, 李晚震, 李中禧, 李彙璘, 李晚宣, 李彙國, 李晚選/監板有司(2명): 幼學 李晚洙, 生員 李珀/直日(6명): 幼學 金僞相, 生員 李晚燿, 琴永基, 李中鳳, 李中運, 李中輦

44) 都都監(2명): 縣監 柳寅睦, 前都正 李晚逸/都監(6명): 李彙聞, 李晚震, 李中範, 李彙璘, 金基洛, 前正言 李晚燿/校正都監(6명): 幼學 李晚昌, 前監役 李晚寅, 幼學 李中應, 前承旨 李中斗, 幼學 金僞相, 李中鏡/監刻(8명): 幼學 李晚健, 李晚攄, 李中禧, 李中溥, 李晚瑾, 李中淑, 李昂淵, 李晚護/監印(8명): 李中運, 李晚好, 琴鼎基, 李中協, 李中欽, 李晚璟, 李中寅, 李義浩/寫本(10명): 幼學 金道源, 李中輦, 李中聖, 李中寬, 李善求, 李中突, 金禹奎, 李光鎬, 李斗鎬, 李星鎬/收單(15명): 幼學 李彙鳳, 李中約, 李中赫, 李宗鎬, 李晚大, 李彙容, 李晚鳳, 李中懋, 李中錫, 李晚杓, 李晚瑗, 李中珪, 李中夏, 李中璇, 李能鎬/直日(4명): 李中一, 李觀鎬, 李麟鎬, 李中業

監에 縣監 柳寅睦, 前都正에 李晩逸, 都監에 前正言 李晩燐, 校正都監에 前承旨 李中斗가 참여하였다.

## 16) 『好古窩集』(好古窩柳先生文集 刊役時執事)

『호고와집』은 조선 후기 안동 출신의 학자인 柳徽文(1773-1832)의 시문집으로 1897년에 목판본 19권 10책으로 간행하였다.

『정재집』과 같이 문중 분정기와 문중 외 분정기가 각각 전해지고 있다. 문중 분정으로 都都監 2명(前護軍 柳漸文, 前都正 柳止鎬), 都監 5명, 校正都都監 1명, 校正都監 3명, 校正有司 4명, 伐板 6명, 運板 5명, 烹板 4명, 監刻 4명, 校板 8명, 監印 6명, 粧績 8명, 時到 4명, 直日 3명, 都辦 4명 등 전체 67명이 기록되어 있다.<sup>45)</sup> 정유 3월 9일의 기록이 있어 1897년에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중 외 분정으로는 都都監 6명, 烹板 8명, 校正 12명, 監刻 14명, 粧績 11명, 都辦 2명 등 전체 53명이 기록되어 있다.<sup>46)</sup> 都都監에 前持平 西山 金興洛, 前正字 李文求, 校正에 進士 金景洛, 監刻에 進士 金瑞洛이 참여하였다. 『호고와집』 분정기는 烹板, 伐板, 運板처럼 목판 관련 공정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45) 都都監(2): 前護軍 柳漸文, 前都正 柳止鎬/都監(5): 幼學 柳弘鎭, 柳浩永, 柳致倫, 柳錫洛, 柳明欽/校正都都監(1): 柳建鎬/校正都監(3): 柳東植, 柳廷鎬, 柳必永/校正有司(4): 柳淵穆, 柳淵憲, 柳震鎬, 柳佐淵/伐板(6): 柳致曦, 柳周鎬, 柳咸永, 柳巖鎬, 柳一永, 柳臣鎬/運板(5): 柳崇鎬, 柳亨鎬, 柳漸鎬, 柳榮鎬, 柳載鎬/烹板(4): 柳淵哲, 柳郁鎬, 柳致在, 柳淵好, 柳致遇, 柳淵根, 柳淵達, 柳淵昌/監印(6): 柳斗鎬, 柳淵九, 柳秉鎬, 柳德永, 柳東秀, 柳東翰/粧績(8): 柳淵博, 柳耆永, 柳敬熙, 柳極鎬, 柳學鎬, 柳淵均, 柳迪鎬, 柳淵鎬/時到(4): 柳正植, 柳中植, 柳淵護, 柳東鼎/直日(3): 柳鳳熙, 柳晦植, 柳淵覺/都辦(4): 柳致堽, 柳定鎬, 柳憲鎬, 柳頤欽

46) 都都監(6): 前持平 金興洛, 前正字 李文求, 幼學 朴齊規, 張景杓, 玉斗煥, 禹平[]/烹板(8): 幼學 鄭之愨, 裴永義, 李元八, 李庭愚, 金德鉉, 權載勳, 琴弘烈, 朴勝周/校正(12): 幼學 金養鎭, 李進榮, 金魯銖, 李載基, 李庭煥, 進士 金景洛, 幼學 李重明, 金敬植, 裴善晦, 權錫夏, 鄭象欽, 金縉輝/監刻(14): 幼學 金弼洛, 李庭璧, 李重三, 金鎭裴, 裴永斗, 李捷, 李宜燦, 裴淵度, 金鎭澤, 南錫愚, 金夏林, 進士 金瑞洛, 幼學 安弼重, 權濟寧/粧黃(11): 幼學 李庭欽, 權鎭吾, 李岱榮, 金學圭, 金中述, 李拈, 前正字 金鴻洛, 幼學 邊周煥, 朴始壽, 禹臣稷, 裴秉憲/都辦(2): 幼學 李有基, 李承述

이상을 종합해보면, 각 문집별로 분정기를 기록하는 순서는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순서로 작성하였다. 대체로 가장 앞부분에는 간역의 전체적인 책임(도도감, 도감)이 있으며, 그 뒤로 교정 관련(교정도도감, 교정도감, 교정유사), 판각 감독(감각도감, 감각), 인출 감독과 인출 관리(감인도감, 감인, 감인유사)의 순서이다. 분정기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도도감과 도감 뒤에 교정 관련 항목이 위치한 것은 간행 과정과도 관련 있지만 문집 간행의 여러 임무 중 도도감, 도감과 함께 교정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며, 당대 저명한 학자나 벼슬을 역임했던 인물들이 맡도록 하였다. <표 3>은 22종의 분정기 중 관직 등의 이력이 표기된 분정 항목을 추출한 것이다. 당대 지역 사회의 주요 인물들은 여러 항목 중 도도감, 도감, 교정도감에 많이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주요 인물의 분정 기록

서명	주요 인물 참여	서명	주요 인물 참여
근암집	도도감: 柳淵博	서계집	도도감: 幼學 李兢淵
농재집	도감: 前大司成 李能燮/ 교정도감: 前縣監 李鍾祥, 縣監 李能亨/勘校: 進士 李能突/ 監印: 前參奉 李在喜, 前直長 李能華/直日: 進士 李能升	송고집	교정도감: 進士 朴勝振/ 刊行: 前直員 權大鑣, 前主事 張斗奎
도산금문 제현록	교정도감: 前校理 李晚燹, 前參奉 李中植, 進士 李康鎬/ 교정유사: 進士 李中均/ 都辦: 前參奉 李植淵	임재연보	도도감: 進士 宋基普/ 교정도감: 前參奉 柳萬植, 進士 高斗演/ 監印: 前參奉 姜來熙/ 公事員: 進士 張龍煥
면암집	도감: 前縣監 李秉遠	퇴계세계도 병부록	도도감: 前參判 李晚運/ 都辦: 生員 李晚杰/ 監寫: 前應教 李晚燾, 前參奉 李中慶 監印: 前校理 李晚容/ 監板有司: 生員 李珀 直日: 生員 李晚燹
백불암집 (重刊)	都檢擧: 前承旨 李晉祥/ 교정도감: 進士 李海祥, 進士 李源祐, 前牧使 李龔載, 前校理 金龍洛, 前正言 郭泰魯/ 교정유사: 進士 李以斗, 進士 徐炳坤, 進士 李維在/ 直日: 進士 朴鐵鉉		

보백당실 기/응계집	도감: 前郡守 柳止鎬, 進士 金景洛/ 교정: 進士 金瑞洛	퇴계연보/ 계몽전의	도도감: 縣監 柳寅睦, 前都正 李晚逸/ 도감: 前正言 李晚燾/ 교정도감: 前監役 李晚寅, 前承旨 李中斗
사서집평	도도감: 柳淵博		도도감: 前護軍 柳漸文, 前都正 柳止鎬
정재집 (門外)	도도감: 前參判 李敦禹, 副護軍 金奎洛/ 도감: 進士 李鍾泰/ 교정도도감: 前都正 權璉夏/ 교정도감: 金道和, 前校理 權載喆, 前承旨 李錫宙, 前正言 李敦煜/ 교정유사: 進士 權世淵, 進士 金景洛	호고와집 (門中)	도도감: 前持平 金興洛, 前正字 李文求/ 교정: 進士 金景洛/ 監刻: 進士 金瑞洛/ 粧黃: 前正字 金鴻洛
		호고와집 (門外)	

분정기의 후반부에는 시도 및 기타 관리 임무(장재, 직일, 도판 등)를 기록한 것이 일반적이며, 자세한 분정기에는 伐板, 運板, 洗板, 粧緘, 頒秩의 항목을 넣기도 하였다. 이러한 순서는 대체로 간행 과정의 순서와 관련이 있다. 간역의 최고 책임자인 도도감과 도감은 한 분정기 내에 함께 있기도 하였으나 도도감 없이 도감을 최고 책임자로 분정한 것도 다수 있다. 도도감이 간행의 최고 책임자인 경우 그 인원은 1-2명이 대부분이나 『사서집평』(인역시)과 『정재집』(문중 외 분정)은 2명, 『호고와집』은 문중 외 분정은 도도감 6명, 문중 분정은 도도감 2명을 두었다.

도도감과 도감을 같이 둔 『근암집』은 도도감 1명, 도감 4명, 『도산급문제현록』은 도도감 1명, 도감 8명, 『사서집평』(간역시)는 도도감 1명, 도감 5명, 『사서집평』(인역시)는 도도감 2명, 도감 4명, 『암당집』은 도도감 1명, 도감 5명을 두었다. 특히 『정재집』의 문중 외 분정은 도도감 2명, 도감 18명, 문중 분정은 도도감 1명, 도감 8명으로 비교적 많은 인원을 배정한 것이 돋보인다. 도도감을 따로 두지 않은 『보백당실기』의 경우 도감만 7명을 두었다.

인원이 가장 많은 분정기는 전주류씨 문중의 후손과 문인들이 주도하여 간행한 『정재집』이다. 문중 외 분정 인원이 113명, 문중 분정 인원이

65명으로 전체 185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같은 전주류씨 무실문중에서 간행을 주도한 『호고와집』은 문중 외 분정 인원이 53명, 문중 분정 인원이 67명으로 전체 120명이 참여하였다.

여러 분정 항목 중 분정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은 교정 관련이다. 이는 조상이나 스승의 저술에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거나 중대한 과오로 여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용상의 오류나 판각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지역과 문중의 학식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분정의 여러 항목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하였다. 교정 관련 분정은 주로 교정도감과 교정유사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校正都監, 校正, 板校 등도 있다. 특히 『농재집』은 전체 75명 중 17명(교정도감 8명, 교정유사 9명)이 교정을 맡았다. 『정재집』은 문중 외 분정기에 교정도도감 1명, 교정도감 18명, 교정유사 17명 등 전체 113명 중 교정과 관련해서만 전체의 32%인 36명이 맡았으며, 문중 분정기에는 72명 중 7명의 교정도감을 두었다. 『호고와집』의 문중 외 분정기에는 전체 53명 중 교정이 12명이며, 문중 분정기에는 교정도도감, 교정도감, 교정유사까지 따로 두어 정밀하게 교정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제책과 관련하여 粧纘은 『근암집』 3명, 『사서집평』(인역시) 4명, 『정재집』(문중 분정) 15명, 『호고와집』(문중 외 분정) 11명, 『호고와집』(문중 분정) 8명을 두었으며, 頒秩은 『우암집』·『황림집』(중인시)에 4명을 두었다. 목판 제작의 준비 단계인 烹板은 『호고와집』(문중 외 분정) 8명, 『호고와집』(문중 분정) 4명이며, 목판의 이동을 담당한 運板은 『근암집』 3명, 『농재집』 8명, 『보백당실기』 9명, 『사서집평』(간역시) 3명, 『서계집』 10명, 『암당집』 4명, 『호고와집』(문중 분정) 5명이며, 『입재언보』는 運板都監에만 11명을 두었다.



<표 4> 문집별 분정과 인원수

서명		분정과 인원수
근암집		都都監(1), 都監(4), 校正都監(4), 伐板(3), 運板(3), 監刻(3), 板校(4), 監印(2), 粧黃(3), 直日(3), 都辦(3)
농재집		都都監(1), 都監(1), 校正都監(8), 校正有司(9), 寫板(8), 勘校(6), 監印(10), 讐板(8), 運板(8), 都廳(6), 直日(10)
도산급문 계현록		都都監(1), 都監(8), 校正都監(9), 校正有司(2), 寫本(6), 板校都監(6), 監刻都監(6), 監印都監(6), 都辦(6), 時到(19)
면암집		都監(2), 校正都監(2), 校正有司(2), 有司(17), 直日(3)
백불암집 初刊		同門稷任司: 都廳(2), 有司(4)/刊役所任事: 都廳(2), 有司(4), 都檢(1), 伐板(1), 運板(1), 校正(4), 監印(3), 司貨(1), 시도(38)/刻手分定: 都刻手(1), 公事員(1), 掌務(1), 曹司(1), 首頭(20), 木手(1), 冊工(2), 炊飯(2)
백 불 암 집 重刊	門中	責應都監(2), 責應有司(4), 校正都監(2), 校正有司(4), 監印都監(2), 監印有司(5), 直日(5)
	門外	都檢舉(1), 都廳(2), 責應(2), 校正都監(14), 校正有司(11), 監印(5), 直日(5)
보백당상기		都監(7), 校正(7), 監刻(9), 監印(9), 運板(9), 粧黃(7), 都辦(7), 時到(5), 直日(9)
사서 집평	刊役	都都監(1), 都監(5), 校正都監(1), 校正都監(4), 伐板(3), 運板(3), 監刻(4), 監印(4), 直日(9), 都辦(5)
	印役	都都監(2), 都監(4), 校正都監(5), 寫本(4), 監印(8), 粧黃(4), 時到(5), 直日(4), 都辦(5)
서계집		都都監(1), 都監(4), 校正都監(2), 都辦(4), 寫本(4), 運板(10), 監刊(9), 板校(4), 監印(11), 直日(7)
송고집		校正都監(1), 都監(4), 寫本(5), 監印(3), 板校(4), 刊行(3), 掌財(2), 公事員(2), 曹司(2)
암당집		都都監(1), 都監(5), 校正(4), 板校(4), 寫本(5), 監印(5), 運板(4), 掌財(3), 直日(6)
우암/ 황 립 집	刊役	都都監(1), 都監(5), 校正(9), 監印(9), 監刻(6), 校刻(9), 書寫(12), 掌財(7), 粧黃(7), 洗板(7), 直日(7)
	重印	都監(3), 總務(2), 校正(2), 板校(2), 監印(2), 掌財(2), 洗板(3), 補板(3), 編輯(3), 粧黃(2), 結冊(2), 頒秩(4), 直日(4), 有司(3)
임재연보		都都監(1), 都監(4), 校正都監(6), 運板都監(11), 監印(11), 寫本(10), 直日(7), 公事員(2), 曹司(2)
정재 집	門中	都都監(1), 都監(8), 校正都監(7), 監刻(11), 監印(10), 粧冊(15), 直日(7), 時到(11), 都辦(2)
	門外	都都監(2), 都監(18), 校正都監(1), 校正都監(18), 校正有司(17), 監刻(10), 監印(13), 直日(27), 時到(5), 都辦(2)
퇴계세계도 병부록		都都監(1), 都辦(3), 校正都監(5), 監寫(9), 監刻(6), 監印(3), 收單有司(10), 監板有司(2), 直日(6)
퇴계연보· 계몽전의		都都監(2), 都監(6), 校正都監(6), 監刻(8), 監印(8), 寫本(10), 收單(15), 直日(4)
호고 와집	門中	都都監(2), 都監(5), 校正都監(1), 校正都監(3), 校正有司(4), 伐板(6), 運板(5), 烹板(4), 監刻(4), 校板(8), 監印(6), 粧黃(8), 時到(4), 直日(3), 都辦(4)
	門外	都都監(6), 烹板(8), 校正(12), 監刻(14), 粧黃(11), 都辦(2)

## 2. 공정별 분정 항목

### 1) 감독과 관리

문집 간행에 있어 전체적인 감독의 임무로는 도도감, 도감, 책응도감, 책응유사 등이 있으며 기타 관리 임무로 掌財, 都辦 등이 포함된다.

도도감은 간역의 최고 책임자로서 분정기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주로 저자의 후손이나 친족 중 학식이 있는 인물, 지역의 명성 있는 인물이 맡았다. 도도감의 수는 대부분 1명이지만 『사서집평』(印役時), 『정재집』의 문중 외 분정기에는 2명이 맡았으며, 『호고와집』의 문중 분정기에는 무려 6명이 맡았다. 『근암집』, 『농재집』, 『도산급문제현록』, 『사서집평』(刊役時), 『사서집평』(印役時), 『서계집』, 『암당집』, 『우암집』·『황림집』(刊役時), 『입재연보』, 『정재집』의 문중 외 분정기, 『정재집』의 문중 분정기, 『퇴계선생세계도 병 부록』, 『퇴계연보』·『계몽전의』, 『호고와집』의 문중 외 분정기, 『호고와집』의 문중 분정기에 도도감이 있으며, 전체 분정기 중 약 80%에 도도감이 있다.

도감은 도도감 아래의 간역 책임자로, 도도감이 분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대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를 총괄하거나 판각, 교정 등 각 파트별로 따로 두기도 했다. 22종의 분정기 중 17종에 도감이 있으며, 이 중 13종이 도도감의 하위, 4종이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

都檢擧는 『백불암집』(初刊) 분정기에 있으며, 간역을 총 관리하는 도도감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진다. 責應都監은 『백불암집』(重刊時) 문중 분정기에 있으며, 도도감과 비슷한 총책임자의 임무인 것으로 여겨진다. 責應有司는 책응도감 하위의 책임자로 『백불암집』(重刊時) 문중 분정기에 있다. 責應은 『백불암집』(重刊時) 문중 외 분정기에 있으며, 都檢擧와 都廳의 하위에 위치한다. 都廳은 실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농재집』, 『백불암집』(重刊時) 문중 외 분정기에 있다. 기타 회계 및 행정 업무로 금전 출납을 관리하는 掌財는 『송고집』, 『암당집』, 『우암집』·『황림집』(刊役時), 『우암집』·『황림집』(重印時) 분정기에 있다. 司貨는 회계, 금

전, 물품을 관리하던 것으로 『백불암집』(初刊) 분정기에 있으며, 장재와 비슷한 임무이다. 都辦는 경비 조달과 회계를 담당했으며, 『근암집』, 『도산급문제현록』, 『보백당실기』, 『사서집평』(刊役時), 『사서집평』(印役時), 『서계집』, 『정재집』 문중 분정기, 『정재집』 문중 외 분정기 등에 있다. 時到는 방문자 관리로 『도산급문제현록』, 『보백당실기』, 『사서집평』(印役時), 『정재집』 문중 분정기, 『정재집』 문중 외 분정기, 『호고와집』 문중 분정기에서 확인된다. 기타 直日은 당직이나 일직의 사무 관리로 대부분의 분정기에 확인되며, 總務는 전체 업무 관리로 『우암집』·『황림집』(重印時) 분정기에 있다. 公事員은 문집 간행의 관리 및 연락책 임무로 『백불암집』(初刊), 『송고집』, 『입재연보』 분정기에서 확인된다.

## 2) 교정<sup>47)</sup>

교정 관련 임무는 校正都都監, 校正都都, 校正有司, 校正 등이 있으며 학식이 있는 지역의 지식인들이 맡은 중요한 자리였다. 교정도도감은 교정의 총책임자로 『사서집평』(刊役時), 『정재집』 문중 외 분정기, 『호고와집』 문중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校正都監은 교정의 책임자로 『근암집』, 『농재집』, 『도산급문제현록』, 『면암집』, 『백불암집』, 『사서집평』(刊役時), 『사서집평』(印役時), 『서계집』, 『송고집』, 『입재연보』, 『정재집』 문중 분정기, 『정재집』 문중 외 분정기, 『퇴계선생세계도 병 부록』, 『퇴계선생연보』·『계몽전의』, 『호고와집』 문중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교정 작업의 최고 책임자였지만 『사서집평』(刊役時), 『정재집』 문중 외 분정기, 『호고와집』 문중 분정기에는 교정도도감의 하위에 있다.

校正有司는 교정의 실무를 보는 것으로 『농재집』, 『도산급문제현록』, 『면암집』, 『백불암집』, 『정재집』 문중 외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호고와집』 문중 분정기에는 도도감-도감-교정도도감-교정도감-교정유사

47) 교정은 편집 교정, 인출 후 교정, 판각 후 교정 등이 있다. 분정기를 통해 판각 교정은 확인되지만 편집 교정과 인출 교정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교정 항목에는 인출 교정도 포함될 수 있다.

의 순서이다. 校正은 『보백당실기』, 『암당집』, 『우암집』·『황림집』(간역시), 『우암집』·『황림집』(중인시), 『호고와집』 문중 외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勘校도 교정과 비슷한 임무로 『농재집』 분정기에서 확인된다.

### 3) 서사 관련

서사와 관련해서는 監寫, 寫板, 寫本 등이 있다. 監寫는 서사를 감독하는 임무로, 『퇴계선생세계도·부록』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寫本은 정서본을 작성하는 것으로, 『도산급문제현록』, 『사서집평』(印役時), 『서계집』, 『송고집』, 『암당집』, 『입재연보』, 『퇴계선생연보』·『계몽전의』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寫板과 書寫 또한 사본과 비슷한 것으로, 사판은 『근암집』(1912)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書寫는 『우암집』·『황림집』(刊役時)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 4) 판각과 판각 교정

판각과 목판 관리에 해당하는 임무로는 監刻都監, 監刻, 板校都監 등 분정기의 여러 항목 중 가장 종류가 많다.

監刻都監은 판각을 감독하는 총책임자로 『도산급문제현록』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監刻은 판각을 감독하는 것으로 『보백당실기』, 『사서집평』(刊役時), 『우암집』·『황림집』(刊役時) 분정기에서 확인된다. 監板有司도 판각을 감독하는 임무로 『퇴계선생세계도 병 부록』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비슷한 임무인 監刊은 『서계집』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板校都監은 판각 후 책판 교정의 책임자로 『도산급문제현록』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sup>48)</sup> 板校는 판각 후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임무로 『근암집』, 『서계집』, 『송고집』, 『암당집』, 『우암집』·『황림집』(重印時) 분정기에 있다. 비슷한 임무인 校板, 校刻, 讐板도 판각을 교정하는 것으로, 校板은 『호고와집』의 문중 분정기, 校刻은 『우암집』·『황림집』(刊役時), 讐板은 『농재집』 분정기에서 확인된다.

48) 판각과 판각 후 책판 교정은 ‘교정 항목’에 넣지 않고, ‘판각’ 항목에 포함시켰다.

## 5) 인출

인출 관련 임무는 監印都監, 監印有司, 監印 등이 포함된다.

監印都監은 인출을 감독하는 총책임자로 『도산급문제현록』, 『백불암집』(重刊時) 문중 분정기에서 확인된다. 監印有司는 감인도감 하위의 인출을 감독하는 것으로, 『백불암집』(重刊時) 문중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監印은 인출을 감독하는 임무로 거의 모든 분정기에서 확인된다.

## 6) 목판 관리

기타 伐板은 간행에 쓰일 목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근암집』, 『백불암집』, 『사서집평』(刊役時), 『호고와집』 문중 분정기에서 확인되며, 運板都監은 목판의 이동 시 감독하는 임무로 『입재연보』 분정기에 있다.

烹板은 목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삶는 일을 하는 것으로 『호고와집』의 문중 분정기와 『호고와집』의 문중 외 분정기에 있다. 運板은 목판을 운반하는 임무로, 『근암집』, 『농재집』, 『백불암집』, 『보백당실기』, 『사서집평』(刊役時), 『서계집』, 『암당집』, 『호고와집』의 문중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팽판과 관련하여 『刊所日記』(번암집)에는 판목을 운반[運板]하고, 소금을 사서 판목을 삶은[烹板] 다음 돌아왔다는 기록<sup>49)</sup>이 있어 판각 이전의 과정을 알 수 있다. 補板은 사라지거나 훼손된 목판을 끼우거나 새로운 목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우암집』·『황림집』(重印時)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洗板은 인출 완료 후 목판을 씻는 것으로 『우암집』·『황림집』(刊役時), 『우암집』·『황림집』(重印時) 분정기에서 확인된다.

## 7) 제책과 반질

인출 후 인출지를 차례대로 정리하면서 책으로 묶는 임무는 粧冊, 結冊, 粧黃 등의 용어로 표기되었다. 粧冊은 『정재집』 문중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結冊은 『우암집』·『황림집』(重印時)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

49)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115쪽.

다. 粧黃은 『근암집』, 『보백당실기』, 『사서집평』(印役時), 『우암집』·『황림집』(刊役時), 『우암집』·『황림집』(重印時), 『호고와집』 문중 분정기, 『호고와집』 문중 외 분정기에서 확인된다. 頒秩은 인출 후 문집 배포로 『우암집』·『황림집』(重印時) 분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분정 항목은 크게 감독과 관리, 교정, 서사 관련, 판각과 판각 교정, 인출, 제책과 반질 관련 등으로 나누어진다.<sup>50)</sup>

〈표 5〉 간행 공정별 분정 항목(가나다순)

분정항목	문헌수 <sup>51)</sup>	분정항목	문헌수	분정항목	문헌수
刊行	1	校板	1	運板	8
監刻	11	都監	17	運板都監	1
監刻都監	1	都檢	1	有司	3
		都檢學	1		
監刊	1	都都監	15	掌務	1
勘校	1	都廳	3	掌財	4
監寫	1	都辦	11	粧冊	1
監印	18	木手	1	粧黃	5
監印都監	2	頒秩	1	直日	18
監印有司	1	伐板	4	冊工	1
監板有司	1	補板	1	責應	1
結冊	1	寫本	7	責應都監	1
公事員	3	寫板	1	責應有司	1
校刻	1	司貨	1	總務	1
校正	6	書寫	1	板校	5
校正都監	16	洗板	2	板校都監	1
校正都都監	3	鑿板	1	烹板	2
校正有司	6	時到	7	編輯	1

50) 감독과 관리: 都都監, 都監, 都廳, 掌財, 都辦, 直日, 교정: 校正, 校正都監, 校正都都監, 勘校, 서사: 監寫, 寫本, 書寫, 寫板, 판각과 판각 교정: 監刻都監, 監刻, 板校都監, 板校, 監板有司, 校板, 校刻, 監刊, 목판 관리: 伐板, 運板都監, 運板, 烹板, 補板, 鑿板, 洗板, 인출: 監印都監, 監印有司, 監印, 刊行, 제책과 반질: 結冊, 粧黃, 冊工, 頒秩

51) 대상 자료 22종 중 해당 분정 항목이 있는 수

#### IV. 문중 분정과 문중 외 분정 사례

문집 간행 시 문중 내의 후손이나 혈족들로 구성해서 분정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저자의 문인, 교류 인물 등 문중 외의 인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중 외 인물과 문중 인물을 따로 분정하여 각각의 분정기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문중 외 분정과 문중 분정을 함께 한 대표적인 예는 『정재집』을 들 수 있다.

『정재집』은 안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당대 학계를 주도한 학자인 류치명(1777-1861)의 문집이다. 『정재집』 간행 시 분정기에는 문중 외 분정 내역과 문중 분정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문중 외 분정에는 都都監 2명, 都監 18명, 校正都都監 1명, 校正都監 18명, 校正有司 17명, 監刻 10명, 監印 13명 등 전체 113명이 수록되었는데,<sup>52)</sup> 이를 통해 정재 문인들이 문집 간행 참여를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3)</sup>

정재 류치명의 대표적인 제자 중 한 명인 肯庵 李敦禹(1807-1884)는 문집 간행의 총책임자인 都都監 2명 중 1명이었다. 이돈우는 대산 이상

52) 都都監(2명): 前參判 李敦禹, 副護軍 金奎洛/都監(18명): 幼學 李漢榮, 鄭之敬, 張九鳳, 進士 李鍾泰, 幼學 金鎮大, 李敦稷, 金遠銖, 李宜龍, 金城鎮, 權會淵, 金平壽, 金夔和, 權祚永, 權奭夏, 朴桂壽, 權必奎, 裴永萬, 權載繼/校正都都監(1명): 前都正 權璉夏/校正都監(18명): 幼學 金常壽, 金誠潤, 金鎮誠, 金道和, 前校理 權載喆, 前承旨 李錫宙, 幼學 李庭贊, 南箕煥, 前正言 李敦煜, 幼學 金鎮麟, 金宗洛, 金億銖, 李錫永, 金鎮萬, 金浩永, 權相稷, 金明洙, 李有基/校正有司(17명): 幼學 金弼洛, 李銓, 進士 權世淵, 金濟模, 幼學 李基洛, 李璫, 李贊燾, 進士 金景洛, 金瑞洛, 幼學 李進榮, 權進祐, 金華根, 金宇洛, 李鎬基, 禹敦榮, 金禹林, 金鎮璫/監刻(10명): 金九洛, 李殷榮, 李宅義, 鄭天欽, 禹世準, 南錫璜, 權濟說, 朴齊規, 河大涉, 權周新/監印(13명): 幼學 李元會, 金應樞, 南極五, 玉正煥, 李在榮, 金濟恒, 洪泰喆, 鄭日欽, 金炳宇, 李珂榮, 李鎮河, 權世永, 卓杼/直日(27명): 進士 金達永, 權敦淵, 幼學 金輝昌, 李重岳, 金承洛, 金馨植, 李成基, 進士 姜鐔, 幼學 李珽, 權濟寧, 李宜燦, 金應煥, 李敦大, 金秀洛, 李習, 金秀林, 金潤模, 金時洛, 李壽炳, 權景淵, 金秉植, 裴淵度, 金周秉, 李鍾斗, 金者洛, 姜必翼, 金鎮城/時到(5명): 幼學 李鍾德, 金炳昊, 金建洛, 權時永, 金者洛/都辦(2명): 幼學 李集, 金養鎮

53) 이하 문인 참여 내용은 문중 외 분정기와 『及門錄』(한국국학진흥원 소장)을 비교하였으며, 문인들의 인물 정보는 『급문록』의 기록에 의거하였다.

정의 고손으로 1807년 안동부 일직현 소호리에서 태어나 25세부터 류치명의 문하생이 되어 수학하였다. 都監 중에는 張九鳳, 金鎮大, 金平壽 등 3명이 문인록에 수록되어 있다. 문인록에 의하면, 장구봉의 생년은 기묘년(1819), 字는 德韶, 본관은 안동, 안동 金溪에 거주하였으며, 김진대의 생년은 기묘년(1819), 자는 而遠, 본관은 의성이다. 김평수의 생년은 을유년(1825), 자는 天老, 본관은 의성이며, 안동 金溪에 거주하였다.

校正都監은 權璉夏(1813-1896)가 단독으로 담당하였다. 그는 류치명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정재의 총애를 받았다. 校正都監에는 金鎮誠, 金道和, 南箕煥, 李錫永, 金鎮萬 등의 문인이 참여하였다. 문인록에 의하면, 김진성은 경진생(1820)으로 자는 純若, 호는 賁溪, 본관은 의성이며, 안동 川前[내앞]에 살았다. 김도화(1825-1912)의 호는 拓庵으로, 15세 때 부친의 영향으로 정재 류치명의 문인이 되었으며,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항거하여 金興洛, 柳止鎬 등과 함께 안동의진 결성을 결의하고 안동통문 작성에 참여하였다. 1896년 1월 權世淵이 의병장으로 뽑혔고, 이후 71세 나이에 2대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각지에 격문을 보내 의병 참여를 호소하였다. 남기환은 을유생(1825)으로 자는 士星, 본관은 영양이며, 문경 宮基에 살았다. 李錫永은 을유생(1825)으로 자는 世胤, 호는 溪巢, 본관은 完山이며, 안동 楓井에 살았으며, 정재 류치명의 제문을 썼다. 김진만은 정해생(1827)으로 자는 一元, 본관은 의성이었다. 校正有司에는 金弼洛, 李銓, 進士 權世淵, 金濟模, 李進榮, 禹敦榮, 金禹林 등이 참여하였다. 권세연(1836-1899)의 본관은 安東, 字는 祖源, 호는 星臺이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1대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전은 임진생(1832)이며, 자는 可珍, 호는 平潭, 본관은 固城이며, 法興에 살았다. 기타 김필락은 신묘생(1831)으로 字는 耆伯, 호는 陶隱, 본관은 의성이며, 임하현에 거주하였다. 김제모의 자는 君弼, 본관은 의성이며, 안동 금계에 거주하였다. 이진영은 정해생(1827)으로, 자는 會可, 본관은 재령이며, 馬洞에 거주하였다. 우돈영은 갑신생(1824)으로, 자는 叔範, 호는 敬庵, 본관은 단양이며, 임하현에 거주하였다. 초명은 禹箕準이다. 김우림은 정해생(1827)으로 자는 鳴會, 본관은 의성이며, 海底에 거



주하였다.

監刻에는 禹世準, 權周新 등의 문인이 참가하였다. 우세준은 임진생(1832)으로 자는 顯伯, 본관은 단양이며, 권주신은 무자생(1828)으로 자는 命吉, 본관은 안동이며, 龍溪에 거주하였다. 기타 直日은 金承洛, 金鎭誠(교정도감으로도 참여), 時到는 金炳昊, 李鍾德, 都辦은 金養鎭(1829-1901)이 문인으로 『정재집』의 간행에 참여하였다.

〈표 6〉 정재집 간행시 문인 참여

분정항목	성명	생년, 자, 호, 본관, 거주지(급문록 기록)
都都監	前參判 李敦禹	丁卯(1807), 始能, 肯庵, 韓山, 蘇湖
都監	張九鳳	己卯(1819), 德韶, 安東, 安東 金溪,
	幼學 金鎭大	己卯(1819), 而遠, 義城
	金平壽	乙酉(1825), 天老, 義城, 金溪
校正都都監	前都正 權璉夏	癸酉(1813), 可器, 頤齋, 安東, 西谷
校正都監	金鎭誠	庚辰(1820), 純若, 賁溪, 義城, 川前
	金道和	乙酉(1825), 達民, 拓庵, 義城, 龜湖,
	南箕煥	乙酉(1825), 土星, 英陽, 聞慶 宮基
	李錫永	乙酉(1825), 世胤, 溪巢, 完山, 安東 楓井
	金鎭萬	丁亥(1827), 一元, 義城
校正有司	金弼洛	辛卯(1831), 耆伯, 陶隱, 義城, 臨河
	李銓	壬辰(1832), 可珍, 平潭, 固城, 法興
	進士 權世淵	丙申(1836), 祖源, 星臺, 安東, 西谷
	金濟模	君弼, 義城, 金溪
	李進榮	丁亥(1827), 會可, 載寧, 馬洞
	禹敦榮	禹敦準, 甲申(1824), 叔範, 敬庵, 丹陽, 臨河
	金禹林	丁亥(1827), 鳴會, 義城, 海底
監刻	禹世準	壬辰(1832), 顯伯, 丹陽, 美質
	權周新	戊子(1828), 命吉, 安東, 龍溪
直日	金承洛	乙未(1835), 士欽, 義城, 金溪
	金鎭誠	庚辰(1820), 純若, 賁溪, 義城, 川前
時到	金炳昊	甲午(1834), 聖欽, 安東, 默溪
	李鍾德	乙未(1835), 馨彥, 固城, 法興
都辦	金養鎭	己丑(1829), 正伯, 愚軒, 義城, 輞川

한편, 문중 분정기에 수록된 인원 72명은 대부분 무실[水谷]마을에 거주했던 전주류씨들로 구성되었다.<sup>54)</sup> 무실마을은 현재 수몰된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와 박곡리 일대로 입향조 柳城(1533-1560)이 터를 잡은 이후 후손들이 번성하였다. 도도감은 柳致厚(1806-1883)가 맡았는데, 그는 壺谷 柳範休(1744-1823)의 손자이자 壽靜齋 柳鼎文의 아들이다.

위의 2종의 분정기록으로 보아 당대 정재 류치명의 문인들, 즉 이돈우, 권연하, 김도화, 권세연 등의 주요 인물들과 저자의 거주지였던 안동 무실마을에 거주했던 전주류씨들의 주도하에 『정재집』의 간행을 진행하였다. 특히 정재의 아들인 류지호를 비롯하여 문인 이돈우, 권연하, 김홍락, 김도화, 권세연 등의 문인들은 문집 간행에 참여하면서 이후 안동지역 항일의병 운동을 주도하였다.

## V. 요약 및 결론

본고는 22종의 분정기를 조사하여 문집별 분정 내역, 공정별 분정 항목과 항목별 참여 인원수 등 분정의 특징과 정재 류치명의 문집 간행시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참여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정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爬錄’이며, 일부 ‘爬任記’라고도 하였다. 분정기에 수록된 항목은 문집마다 동일하지 않았으며, 문집 규

54) 都都監(1명): 柳致厚/都監(8명): 柳道永, 柳漸文, 柳家永, 柳致衡, 柳斗鎭, 柳致殷, 柳致卓, 柳致瑋/校正都監(7명): 柳宅欽, 柳致淵, 柳致相, 柳根永, 柳潤文, 柳健欽, 柳建鎬/監刻(11명): 柳致格, 柳進鎬, 柳時永, 柳頤永, 柳之倫, 柳大鎭, 柳浩永, 柳致煥, 柳龍欽, 柳達洙, 柳宜鎭/監印(10명): 柳廷弼, 柳致章, 柳致泳, 柳明欽, 柳錫洛, 柳福永, 柳哲鎬, 柳淵哲, 柳定鎬, 柳淵憲/粧冊(15명): 柳膺鎬, 柳致斗, 柳淵善, 柳瑾永, 柳致埜, 柳致曦, 柳斗永, 柳潮永, 柳大永, 柳致慤, 柳致杰, 柳郁鎬, 柳憲鎬, 柳一永, 柳根鎬/直日(7명): 柳東植, 柳廷鎬, 柳箕植, 柳壁鎬, 柳必永, 柳淵好, 柳淵楫/時到(11명): 柳淵穆, 柳致遇, 柳淵達, 柳淵根, 柳極鎬, 柳淵重, 柳淵覺, 柳淵警, 柳東奭, 柳章憲, 柳昌植/都辦(2명): 柳致麟, 柳基鎬

모와 간행 여건에 따라 분정 인원수나 항목도 달랐다.

분정 항목은 감독과 관리, 교정, 서사 관련, 판각과 판각 교정, 인출, 목판 관리, 제책과 반질 등으로 나뉘어진다. 감독과 관리는 도도감, 도감이 포함되며, 전체 감독과 관리를 하였다. 교정은 교정도도감, 교정도감, 교정유사 등이 포함되고, 서사 관련 항목은 감사, 사본, 사판이 포함된다. 판각과 판각 교정 항목은 감각도감, 감각, 판교도감, 판교, 감판유사, 교판, 교각, 목판 관리 항목은 별판, 운판도감, 운판, 팽판, 보판, 세판, 인출은 감인도감, 감인유사, 감인 등이 포함된다. 제책과 반질 관련 항목은 장황, 결책, 반질이 포함된다.

분정의 여러 임무 중 도도감은 간행의 총괄 책임자로 대부분의 분정기에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 학식이 있는 인물이 주로 맡았다. 도감은 도도감 하위의 책임자였지만 도도감을 분정하지 않았으면 최고 책임자였다. 대부분의 분정기에 들어있으며, 전체를 총괄하거나 감각도감, 교정도감과 같이 항목별로 도감을 두기도 하였다. 22종의 분정기 중 17종에 도감이 있으며, 이 중 13종이 도도감의 하위, 4종이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 교정은 교정도감, 교정유사 등 분정 항목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하였는데, 도도감, 도감과 함께 학식이 뛰어나고 연륜 있는 인물이 담당하였다.

분정기의 항목별 기록 순서는 모두 동일하지 않지만 비슷한 순서로 작성하였는데, 그 순서는 간행의 순서와 관련이 있다. 앞부분에는 간역의 총책임이 있고, 그 뒤로 교정의 책임 및 실무, 판각 감독과 판각 교정, 인출 감독과 인출 관리가 배치되어 있다. 끝부분에는 시도 및 기타 간역의 제반 관리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인 분정기에는 목재를 베는 伐板, 목판을 운반하는 運板, 목판을 씻는 洗板 등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문집을 간행할 때 문중 인물과 문중 외 인물을 각각 분정하기도 하였는데, 그 예가 『호고와집』과 『정재집』이다. 『호고와집』의 문중 외 분정기에는 도도감을 맡은 서산 김홍락 등 53명이 들어있으며, 문중 분정기에는 당대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류점문, 류지호를 도도감으로 하여 전체 67명이 포함되어 있다.

『정재집』의 문중 분정에 포함된 인원수는 도도감 1명, 도감 8명 등 전체 72명으로, 무실마을의 전주류씨들로 구성되었다. 문중 외 분정에 포함된 인원수는 도도감 2명, 도감 18명, 교정도도감 1명, 교정도감 18명, 교정유사 17명 등 교정 부분만 36명이었다. 전체 113명 중 32%가 교정 임무를 맡은 것이다. 정재 류치명의 대표적인 제자 중 한 명인 이 돈우는 간행의 총책임자인 도도감 2명 중 한 명이었다. 또 권연하는 교정도도감, 김도화는 교정도감, 권세연은 교정유사를 담당하였다.

이렇듯 『정재집』의 대대적인 간행 사업은 무실마을에 거주했던 전주 류씨들과 류치명의 주요 문인들이 선조이자 스승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로 협력하면서 완성하였다.

※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近庵先生文集 刊役時爬錄』  
 『陶山弟子錄 刊役時爬錄』  
 『俛庵先生文集 刊役執事』  
 『百弗庵先生文集刊役時 執事分定記』  
 『四書集評 刊役時爬錄』  
 『松臯宋公遺稿 刊行時爬錄』  
 『巖塘金公文集 刊役時爬錄』  
 『憂菴篁林兩先生 刊役所爬錄』  
 『好古窩柳先生文集 刊役時執事』  
 포항시, 『포항덕동민속전시관』, 포항: 포항시청, 2018.  
 한국국학진흥원, 『문집판각의 기록-간역시 일기』,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5.  
 김영진, 「조선조 문집 간행의 제양상-조선 후기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43, 2014, 5~75쪽.  
 김윤제, 「조선시대 문집 간행과 성리학」, 『한국사 시민강좌』 37, 2005.  
 김순석, 「유교사회와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사적 의의-『선생문집개간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2, 2014, 439~466쪽.  
 류준필,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적 의의-19세기~20세기 초 영남 지방의 문집 간행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0, 2010, 97~132쪽.  
 손계영, 「『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46, 2015, 153~182쪽.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특히 조선시대의 문집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 2001, 365~394쪽.  
 이미진, 「안동의 어느 간역소에 보낸 메시지-『西谿集刊役日錄』의 편지와 한시를 중심으로-」, 『영남학』 71, 2019, 287~312쪽.  
 장원연, 「늘개집 책판 교정 사례 연구」, 『서지학연구』 70, 2017, 227~252쪽.  
 장원연, 「조선시대 개인문집의 간행과 교정」, 『서지학보』 34, 2009, 59~88쪽.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http://www.ugyo.net>)

Abstract

## A Study of the Distribution of works in the process of anthology publishing in Chosun Dynasty

Woo, Jin-woong

For the successful publication of the literary collection in Chosun Dynasty, community scholars decided on the task of each course after several meeting. The records made at this time are called 'Bunjung-gi (分定記)' that is work-sharing records. 'Bunjung-gi(分定記)' was nothing more than a simple record of each course's tasks and names are list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know the early stage of the collec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The study covered 22 types of 'Bunjung-gi', including the production records of literary works, and the items classified by each course. We also looked at the publication process of 『Jeongjaejip(定齋集)』, a collection of writings by Ryu Chi-myeong, a scholar of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he status of his colleagues' participation.

Items of 'Bunjung-gi(分定記)' can be divided supervision and management, proofreading, transcription, engraving and proofreading, withdrawal, woodblock management, binding and offering etc. The items and order of the 'Bunjung-gi(分定記)' were not the same for each literary collection, but were mainly arranged in the order of the publication process.

Among the various duties recorded in the ‘Bunjung-gi(分定記)’, ‘Dodo-gam(都都監)’ and ‘Do-gam(都監)’ were appointed as the general manager of the publication of literary works, and were mainly composed of 1-2 people who were experienced and educated in the local community. ‘Do-gam(都監)’ wa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entire process or for managing and supervising each process, including engraving, withdrawal, and calibration.

‘Bunjung-gi(分定記)’ was written by the descendants or students of the author of the book. However, if it was composed of only family members or non-family members, the second part of the book was written separately.

In one of these cases, 『Jeongjaejip(定齋集)』, the scale of the family's role division was up to 72 community people. The 113 people non-family's division of roles included Ryu Chi-myung(柳致明)'s students, including Lee Don-woo(李敦禹), Kwon Yeon-ha(權璉夏), Kim Do-hwa(金道和) and Kwon Se-yeon(權世淵). These friends were responsible for the main duties such as ‘Dodogam(都都監)’, ‘Gyojeongdodogam(校正都監)’ and so on.

**keywords :**

Woodblocks, Anthology, Publishing of Anthology, Distribution of works, Bunjung-gi, Printed book in woodblock.

